

진짜 무소유는 '나'라는 생각 갖지 않는 평상심

간화 禪 세계를 비추다

2고우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참선 수행의 목적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 버스웰)이 8월 12~13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암)은 '참선 수행의 목적'을 주제로 회향법문을 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바로잡음-사과드립니다 798호 14~15면 '선지식을 찾아서' 고우 스님 편의 법문은 제작상의 실수로 797호에 실렸던 혜국 스님의 법문 내용이 교체되지 않은 채로 제작됐습니다. 혜국 스님, 고우 스님,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참선이 무엇인가? 참선도 부처님 가르침을 성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선을 왜 하는가?' '불교를 왜 믿는가?'라는 질문도 같습니다. 둘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불교는 여타 종교나 사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목적에 도달했을 때도 여타의 종교 사상은 다릅니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내 밖에서 얻으려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가다보니 행복의 조건을 물질에 두게 되었습니다. 물질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밖으로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현대 문명이 풍요롭고 편리하지만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면 불행하게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출가해서 발견한 것이지만 밖으로의 추구는 행복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 100%의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기능만 있는 100%의 행복을 만들려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세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밖으로 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잘 얻게 되고 여기서는 순기능만 작용합니다. <서장>에서 대해 선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체험하면 내가 바로 부처와 조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선(禪)입니다. 선이라고 하면 좌선(坐禪)을 떠올리는데 그 자리를 발견해야 진정한 좌선입니다. 몸이 앉아 있는 것이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앉는 것이 진짜 좌선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일상생활이 매일 매일 행복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음덕을 끼쳐 줄 수 있어서 공익(公益)을 위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불교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사회와 이웃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제 군주국에 살았던 대해 선사는 대신(大臣)이 수행을 잘해서 정치를 잘 하면 임금에 요순의 지위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매우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내 혼자 잘 되려고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와 우리 집을 위하여 하다가, 선을 자꾸 하다보면 눈이 열리고 이웃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이웃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참선 잘못된 것입니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이기심이 없어지며 남과 더불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내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도 편안하게 하려는 큰마음이 열립니다.

최근에 저는 '아비타'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4D의 좋은 기술로 상영되는 영화를 보아 기분이 좋았

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불교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선(禪)이 그 쪽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지구 자원이 고갈되어 판도라라는 행성에 가서 자원을 약탈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약탈하려는 인간의 수단이나 그것을 방어하려는 나비족의 방법이 모두 다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은 악순환만 되풀이 할 뿐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절대로 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좋다고 한다면 누구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저는 부시형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서 저는 부처님의 위대성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힘으로 하는 그것이 무슨 대단한 해결 방법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부처님의 불법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한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과학이 여러 방면에서 부처님께서 발견한 세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연기로 존재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연기란 어떤 것도 단일로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으며,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것이 서로 관계 맺어서 가상의 존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무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6식은 표면의식, 7식은 잠재의식, 8식은 무의식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식은 가장 심층의 미세한 마음의 작용인데 예를 들어 문뜰모로 햇빛이 들어오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아주 작은 먼지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 가지 미세한 작용이 이 8식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세 가지 미세한 망념 즉 무명업상(無明業相)이라는 근본 무명, 능견상(能見相)이라는 주관적 인식, 경계상(境界相)이라는 객관적 인식 대상이 작용을 시작합니다.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도인이나 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꼭 같습니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데 도인은 정화해서 작용하고, 도인 아닌 사람은 오염돼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인 안 된 사람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데 주관과 객관이 있다 그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도인이 안 된 사람은 제8식 무의식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심해져서 잠재의식, 표면의식으로 나오면서 집착이 강하게 생깁니다. '이것이 이익이다, 손해다'라는 분별심을 일으키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또 <서장>에서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것을 심고 또 심는 종자와 같다고도 합니다. 구름과 바람과 같다고도 합니다. 처음 작용하면서 거기서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분별로 착각에 빠져서 이런 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관도 허구이고 착각이라는 것, 이것이 무아, 공인 줄 알면 거기서 세탁이 되어서 주객 없는 작

100% 행복을 만들려면 부처님 가르침 깨달아야 몸이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앉는 것이 좌선

겉 믿어야 공부하게 되고, 공부를 해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정신과 몸이 공한 줄 알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공(空)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공(空), 무아(無我)를 깨달으시고 절대적인 행복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을 포함한 우주 자연의 존재 원리를 깨닫고 영원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공을 이해하여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선은 공(空), 무아(無我)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입니다. 참선해서 공,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가? 불교 수행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선이 공, 무아를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음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 의식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8아뢰야식, 제7마나식, 제6식 이 그것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되어 내가 있다는 생각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화하면 공과

용이 일어납니다. 주객이 없는 작용은 개인의 욕망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전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혜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참선으로 정화해서 본래부터 작용하는 지혜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불교는 잘못된 의식을 지혜로 바꾸어 행동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참선은 세탁기와 같습니다. 어디나 작용은 있습니다. 하나는 세탁해서 작용하고, 다른 하나는 주관 객관으로 오염돼서 작용합니다. 오염돼서 작용하다 보니 우리는 인종과 민족, 이데올로기, 종교 갈등과 같은 역기능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허구이고 착각인 줄 알아서 정화하면 갈등이 없는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창조 자본주의인 생명 자본주의니 하는 그런 주의를 능가하는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종류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평화적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선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참선도 능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명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사찰화재보험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 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신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포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유의사항	★가입시 필요자료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 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사찰등록증
	- 각 건축물의 건축(중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호 전화: 010-7344-1881